

취업문 뚫었지만...지역 청년 학자금 대출 체납 급증

작년 광주 2천474건·35억여원 체납
미정리 체납건·액 63% 124.5% ↑
소득 수준·고용 여건 맞는 지원책 必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섰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전남광주지역 청년들이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제청 국제통계포털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남광주 지역 학자금 대출 총체납 건수는 3천881건, 체납액은 53억5천400만원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5년 광주의 총체납 건수는 2천474건, 체납액은 34억7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천463건, 15억1천400만원과 비교하면 체납액은 22배 이상 증가했다.

기한 내 정리되지 않은 '미정리 체납액'도 크게 늘었다.

2020년 958건, 11억1천만원이었던 광주지역 미

정리 체납액은 2025년 1천563건, 24억9천200만원으로 늘었다. 5년 새 건수는 63.2%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124.5% 급증했다.

전남 역시 학자금 대출 체납 규모가 확대됐다.

2025년 전남지역 총체납 건수는 1천407건, 체납액은 18억7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930건, 10억6천만원과 비교하면 체납액은 80% 가까이 증가했다.

미정리 건수와 체납액은 지난 2020년 569건, 6억8천400만원에서 2025년 914건, 13억2천400만원으로 늘었다.

5년 사이 체납 건수는 60.6%, 미정리 체납액은 9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지역에서 총체납액과 미정리 체납액이 함께 증가한 것은 지역 경기 불황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는 대학생이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청년층의 소득 수준과 고

용 형태, 생활비 부담 등이 학자금 대출 상환 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와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체납액 증가는 단순히 청년 개인의 상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청년층이 겪는 고용과 생활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이 상환 부담으로 신용 문제까지 겪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상환 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대추 단감’ 첫 판매
농식품 전문 매장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1일부터 가을 제철 과일인 ‘대추 단감’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대추 단감’을 소개하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충장축제에서 지역 대표 수산물 만나보세요”

7-9일 충장로 일대에서 직거래장터
전북·민어·김 등 최대 40% 할인

전남광주 지역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광주 충장로에서 열린다.

수협중앙회 전남광주지역본부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국과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제9회 전남광주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 시민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서는 전북·참돔·광어·민어·조기·민물장아·홍어·멸치 등 지역 대표 수산물을 비롯해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와 다양한 수산물 가공품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지역 수협이 엄선한 신선한 수산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구독자 284만명을 보유한 전남광주 출신 요리 유튜버 김대석 셰프의 현장 요리 시연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방문객 참여 노래자랑과 팽 없는 추억의 행은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수협중앙회 전남광주본부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가 지역 수산물의 신선함과 품질을 알리는 동시에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지역 수산물의 진가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전남광주 서남부 조선업 ‘훈풍’...산업별 온도차 뚜렷

전남광주 서남부 지역 경제가 조선업 호조에 힘입어 생산과 수출, 고용 지표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산업 생산과 대형 소매점 매출이 줄고 기업 체감경기는 위축되는 등 산업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남광주 서남부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역 주요 조선업체의 생산액은 9천7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1% 증가했다.

수출 역시 선박·해양구조물 수출이 크게 늘며 전년 대비 115.1% 급증한 5억9천만달러를 기록해 지역 경제를 견인했다.

조선업 호황은 고용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었다. 7월 말 기준 서남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

만6천87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늘었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3% 감소했다. 특히 지역 주요 조선업체 고용 인원도 1.4% 증가해 생산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반면, 타 산업군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 7월 수산물 생산액은 해조류(64.3% ↓) 등의 생산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한 2천억원에 그쳤다.

소비 지표의 경우 지역 개인카드 결제액은 4.4% 늘었으나 주요 소매점 매출은 1.7% 감소해 소비 심리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심리 지표인 8월 제조업 설비투자실적B SI(91)와 비제조업 업황BSI(56) 역시 전월보다 하락해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얼어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남부 경제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와 밀접한 수산업, 소매, 투자 심리 등에서는 회복 속도가 더딘 상반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국세청, 소상공인 신속·체계적 세정지원 박차

전남광주·전북 소진공과 업무협약

광주지방국세청은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 지역본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국세청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한데 이어 창업 재기 교육과 납세자세금교실도 함께 운영기로 했다.

또한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정책지원 및 세정지원에 대해 공동 홍보하고,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도열 광주전남제주본부장과 이혁주 전북지역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공단의 ‘정책 지원’과 광주국세청의 ‘세정 지원’이 하나로 엮이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철호 광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박은성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넉넉한 정과 인심이 넘치는
굴비골영광시장, 영광터미널시장,
영광고추특화시장

◎ 장이 서는 날 ◎

굴비골영광시장
영광터미널시장
영광고추특화시장

상설시장
영광읍 중앙로3길 5-22 일원
06:00~20:00
채소류, 생선류 및 일용품 등

상설시장
영광읍 신남로3길 5-3 일원
06:00~20:00
채소류, 생선류 및 일용품 등

상설시장
영광읍 신남로 100-25 일원
06:00~20:00
고추, 마늘 등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영광군

광고문의 : 062)650-2099

CMYK